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개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서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보고자 “圖書館文化”에서는 7월 28일(화)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교육환경개선과 학교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경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박희 사서교사협의회장, 오명숙 어린이도서연구회 문화부장, 이병기 서울중등학교도서관연구회 연구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사회와 원고정리는 우리 협회 이용훈 기획부장이 맡았다.

▲ **사회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중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도 “앞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서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과연 학교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옥 선생님께서 요즘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옥**=요즘 초중등 학교식당 및 상담실, 컴퓨터 설치 등 물적환경은 국가 및 학부모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상황은 더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비워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교사의 수업부

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교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내용이 부실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환경이 개선 되어봤자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선생님 말씀을 듣고보니 도서관 상황과 별 차이가 없네요. (웃음) 그 동안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해오신 오명숙 선생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오명숙**=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책문화 보다는 촌지문화에 더욱 신경을 썼는데 사실 도서관과 촌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촌지에 관해서도 무조건 하지말자라고 말하기 보다는 촌지문화를 없애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학급문고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6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낙도에 무료로 책 보내주기 같은 활동을 했지만 그 후로는 학교도서관 운동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즉 학교에 촌지대신 학급문고

를 기증하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학부모들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으며 내 아이에게 1권의 책을 보내면 한 학급당 40책의 학급문고가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근래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의 관리자측이신 교장선생님과 또한 담당교사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저희들의 이런 운동이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앞으로의 중점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 **사회자**=오명숙 선생님께서는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운동을 전개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사실 학부모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교육 개선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이야기를 좀 돌려서 오랫동안 사서교사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박희 선생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희**=학교도서관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부모나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수립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강한 추진력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스스로 알아서 책 읽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독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맞는 정보들을 선별·수집해서 제공할 수 있는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사회자**=그렇습니다. 박희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턱없이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병기 선생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병기**=오명숙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육 수요자 측이라고 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과연 지금 교육수요자들이 독서문화와 도서관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학교도서관의 상황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 1명 더 보내는 것이 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학교급식 자율학습관 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지 학교도서관은 뒷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있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도서관, 독서문제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봅니다. 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서 하향식으로 밀고나가지 않고는 학교도서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 **오명숙**=물론 선생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는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답답한 마음에 미력하나마 무언가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병기**=이해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독서하는 분위기가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냉철히 진단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욱=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시위주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과서를 떠나서는 도대체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그 교과서라는 것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식과 문제풀이 중심으로 된 교과서에 충실하다 보면 독서교육은 꿈도 못꿉니다. 또 하나는 영·수 위주의 교육과정이 문제입니다. 수학과 영어는 독서활동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학만이 독서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회 과목들이 맡아주면 좋을텐데 현행 입시제도 아래서는 사회 과목들의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훈련이 안되는 거죠. 게다가 진도의 분량도 너무 많습니다. 수업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시간의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 사회자=그래도 예전에는 책을 좀 읽었던 것 생각되는데.....

▲ 김경욱=그런 상황은 입시 평준화 이전 일 겁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대학 갈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이 선별이 되었죠. 대학입시 준비 학생들 또 대학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 각자 그들 나름대로 책을 읽었으나 지금은 누구나 대학입시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혀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도 덩달아 마음의 여유가 없어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 사회자=지금까지 주로 교육환경의 문제

점, 특히 책읽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박희 선생님께서 그 동안의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봐 주시죠.



▲ 박 희=저는 '63년에 도서관 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학교교육에 도서실을 도입한다는 문교부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할 사람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부랴부랴 도서관학과 설치했고 제가 1회 졸업생이 된거죠. 그 때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욱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발했었습니다. 인천제물포고등학교에는 사서교사와 사서가 9명 썩이나 있었고 김경일 선생이 운영했던 경기중학교도서관도 훌륭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중요모델이 되었죠. 문제는 '69년도 중학교 평준화 '74년도 고등학교 평준화 때부터였습니다. 열람 및 대출이 급격이 떨어졌어요. 3년 내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사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외열풍이 불기 시작해 감히 독서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도서관 열람실에는 10등 이내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도서관이 고3 학생들의 독서실화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기관인데 사람들을 차별하게 된거죠. 이때부터 학교도서관은 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 사회자=그러면 현재는 망한 상태인가요?
(웃음)

▲ **오명숙**=우리가 '96년 10월에 서울시내 4개 교육청 소속 4개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서교사는 거의 없었고 연간예산 200만원이 최고였습니다. 설령 책이 들어와도 독서교육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실태조사 목적은 우리 학부모들이 할 몫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회원 중 몇몇 학부모들께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 또는 사서봉사회에 참여해 독서프로그램 진행과 대출업무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안양 일산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성과를 보았습니다. 여유시간이 있는 고학력 주부들을 학교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이런 암담한 현실속에서도 희망은 보이지 않을까요?

▲ **사회자**=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체질개선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도서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 **이병기**=초등학교때까지는 독서활동이 자발적으로 되다가도 중·고등학교에서 부터는 중단되고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논술제도 시행 이후 학생들은 독서를 또다른 부담으로 느낄 뿐입니다.

학교도서관이 아무리 열악해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고정적으로 오지만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좋게 갖추고 신간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아이들의 현재 독서행태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평가없는 자율적인 독서시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서교사가 되었던 국어교사가 되었던 책 읽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책선정이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기초에 권장도서목록 주고 감상문 쓰게 하는 천편일률적인 독서교육 보다는 자율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사회자**=이병기 선생님께서는 독서교육이 잘못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것 같군요. 말씀을 듣다보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교육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독서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김경옥**=우선 우리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출판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책들이 한곳에 모여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소개할 적절한 책자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이 일을 할 수도 없을테고 지역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출판계와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들이 쉽

게 좋은 책을 제공하는 필수시설인데 제 기능을 못해 소년들이 읽을만한 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 박 희=그런데 제도적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도서관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해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빌리곤 했었는데 제 주변의 많은 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범대학 과정에 교육의 자료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 없이 독서에 가치를 부여하는 훈련된 교사가 없으면 안됩니다. 각 단원마다 관련 도서,영상매체 포함한 자료 목록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한편 현 이해찬 교육부장관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독서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걸맞는 정책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자=그런데 장관께서는 학교도서관이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서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도서관계를 아쉽게 했습니다.

▲ 박 희=우리 도서관계에서 먼저 연구한후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사의 의지가 선행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요.

▲ 이병기=독서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문헌을 보면 어떤 학교는 독서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교과에서 특정교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은 각 교과별로 과목담당교사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류는 각 교과별로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 김경옥=사실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읽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선생님들 스스로도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만이 독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짚막하게 다루고 교과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나름대로 편집해서 이를 부교재로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부교재는 참고서 문제풀이 집 밖에 없지 않습니다.

▲ 사회자=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학교도서관이 개혁되려면 우선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로 하지요.



▲ 오명숙=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족하겠지만, 기존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내에 남는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여유 공간에 일단 책들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학부모들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10명에서 15명 내외의 동화읽는 어른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임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아이들 문

화를 보살펴 주고 좋은 책을 선별하고 같이 토론하는 가족문화까지도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관심있는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일단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 모임에서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병기**=학교도서관 문제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미 문제 해결방법 다 나와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부재, 법령미비, 정책담당자의 관심 부족 등,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정부부처에 담당자 없는 분야는 학교도서관뿐일 겁니다. 요즘 들어 조금씩 발전 방향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무부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정보사업 자체를 중앙부서에서는 교육정보국이 담당하나 지방에는 중앙부서에 걸맞는 부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사업을 과학기술교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각급 학교에서도 교육정보화사업을 과학, 기술적으로 다룰 뿐 학교도서관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정보화 시설을 갖추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차제에 사서교사의 의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 되었다고 하면 사서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쉬는 시간에 책 빌리러 오면 책 빌려주고 비디오 빌리러 오면 빌려주고. 이젠 교사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서무

과 직원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는 교사라고 하면 일단 가르치지(teaching) 않으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단지 불편해질 뿐 얼마 못가서 잊혀지고 맙니다. 이론적으로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타개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서교사가 교육의 중심에서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하든지 독서교육을 하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장, 교감 등의 행정가들이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사서교사 정원을 요청해주지 않으면 현실 타개는 어렵습니다. 사서교사도 가르쳐야(teaching)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서교사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싫어 학교도서관으로 왔는데 왜 또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는냐는 거죠.

▲ **박 희**=학교에도 사서교사가 있고 사서도 있어야 합니다. 즉 teacher librarian과 school librarian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학생수가 3천명이 되는 4천명이 되든 사서교사는 1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3대 필수요건이 시설, 자료,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에는 전혀 사서교사 T/O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욱**=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

내해 주는 역할이 진정한 독서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도서관에 모아놓고 사서교사가 있어 단순히 매점직원 마냥 대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왔을 때 독서상담도 해주고 관련된 다른 책들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줄수 있다면 많은 비용 투자 없이 간이도서관이라도 아이들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보화에 투입되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보화의 물결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정보화의 중심을 도서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교실마다 컴퓨터가 있으나 선생님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정보화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죠. 그래서 저희 전교조 쪽에서도 이왕 정보화에 투입될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학교도서관을 제안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기=이상적인 것은 넓은 공간에 모든 매체를 수용해 놓은 일명 미디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표를 세워 과목별로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부분은 교실에서 또 다른 부분은 미디어센터(도서관)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도서관에 와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료를 찾아보고 발표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백과사전 이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정보교육이라는 것은 인쇄매체 이용하는 방법, 영상미디어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조작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명 통합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자료활용법에 대해서는 사서교사들이 담당하고 일반교사들은 교과 내용을 가지고 자료탐구식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요원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 김경옥=그런데 전문담당교사제로 가던 미국이 자신들의 교육제도는 실패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을 흉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우리 한국이 쫓아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형편은 상담은 모든 교사가 하되 특수한 경우를 상담교사가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영역을 교과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과목에 성교육 과목을 넣어야 한다고 하고 소비자교육 철학교육 환경교육 모두 하나의 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과목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지는 것이 바로 미국 식이죠.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고 7차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저는 학교도서관이 멀티미디어적인 시설을 완벽히 갖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사서교사가 있다면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료활용법을 배우러 갈 것입니다. 모든 과목들이 자기 과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마당에 이병기 선생님의 제안은 좋은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병기=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조건 100% 교과목으로 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

사회가 오면서 정보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에게 그런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컴퓨터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다루고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기계적인 조작단계가 넘어서면 '인터넷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릭 두 번해서 화면이 뜨면 그것이 인터넷 다인 줄 알더라구요. 정보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접근은 당연히 기술교과에서 하겠지만 정보활용 능력은 지적과정입니다. 용어선정, 탐색 전략 짜기, 찾은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사실 김선생님과 이 선생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학교도서관이 이제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 희**=다매체 정보화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사가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바른 정보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화할 수 있는나 하는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교육개혁이야말로 정말 모든 국민이 만사를 제쳐놓고 힘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사, 학부모, 장관, 대통령 할 것 없이 그 가치를 인정했으면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인정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 **오명숙**=도서관이 제 기능을 찾으려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되, 단지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모여서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예. 지금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 정책당국자들이 좀더 허심탄회하게 정책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함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 개혁이 이루어지거나 학습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조금씩 희망이 보이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나누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